

1. ③ 2. ④ 3. ④ 4. ② 5. ⑤ 6. ⑤ 7. ③ 8. ⑤ 9. ② 10. ⑤
 11. ② 12. ① 13. ③ 14. ④ 15. ① 16. ① 17. ② 18. ④ 19. ① 20. ⑤

1. 사르트르가 강조한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강연자는 실존주의 사상가인 사르트르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신에 의해 미리 계획되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선택하여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그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타고난 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사르트르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하였다.
- ④ 사르트르는 감정을 중시하였으며,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강조하였다.
- ⑤ 사르트르는 절대자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할 것을 강조하였다.

2. 베이컨과 데카르트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베이컨이고, 을은 데카르트이다. 베이컨은 진리 탐구를 위해 편견과 선입견을 뜻하는 우상을 타파하고 참된 귀납법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철학의 제1원리를 찾았으며, 연역적 추론을 통해 진리를 찾을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베이컨은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② 베이컨은 과학적 지식을 통해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고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데카르트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명백한 진리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⑤ 베이컨과 데카르트는 모두 인간에게 자연에 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3. 플라톤의 철인왕과 이상 국가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철인왕은 폭군인 참주의 정반대쪽에 있는 이상적 통치자이다. 그는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이다. 플라톤은 철인왕의 통치를 이상 국가의 필수 조건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상 국가는 전체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강조되는 민주 국가와 거리가 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에 따르면 철인왕은 이성이 뛰어나고 참주는 욕망이 우세하다.

- ② 플라톤에 따르면 이상 국가의 세 계층은 모두 절제의 덕을 갖추고 있다.
- ③ 플라톤에 따르면 철인왕은 이성, 기개, 욕망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다.
- ⑤ 플라톤에 따르면 철인왕이 갖추고 있는 지혜는 국가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덕이다.

4. 장자의 기본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에 따르면 도가의 이상적 인간상인 성인(聖人)은 지식과 인위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즉 성인은 외물(外物)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노니는 소요(逍遙)의 삶을 살아가며(ㄱ),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몰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추구한다(ㄷ).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유교 사상가들의 기본 입장이다. 장자는 시비선악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 ㄹ. 성선설을 지지하는 유교 사상가들의 기본 입장이다. 장자는 ‘도덕적 본성’을 말하지 않았다.

5.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아우구스티누스이고,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을 활용하여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체계화하였다. 아퀴나스는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활용하여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두 사상가는 모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종교적 덕을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자신을 사랑하고 신을 경멸하는 사람에 의해 지상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신조차도 경멸하는 사람에 의해 천상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 ②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악은 최고선인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 의지를 남용하여 생겨난 것이다.
- ③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은 인간 이성의 명령이다.
- ④ 아퀴나스에 따르면 감각적 경험에서 출발해서도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6. 맹자와 순자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맹자이고,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순자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두 사상가는 모두 교육을 통해 누구나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맹자는 교육을 통해 타고난 선한 마음을 확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순자는 교육을 통해 악한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맹자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즉 시비지심은 인간에게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②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다.
- ③ 순자는 모든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 ④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을 따르자면 인간에게는 타고난 도덕성이 없다.

7. 대승 불교의 기본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공(空)과 중도(中道)를 중시하는 대승 불교의 기본 입장이 담겨 있는 글이다. 첫 번째 글에는 팔불중도(八不中道) 사상이 드러나 있다. 대승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의 실상이 공이라는 것, 즉 모든 존재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것을 강조한다(ㄷ). 그리고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을 강조한다(ㄹ).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대승 불교에서는 분별적 인식을 통해서는 궁극적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본다.
- ㄴ. 대승 불교에서는 멸제(滅諦)에서 벗어날 것이 아니라 멸제를 추구할 것을 강조한다. 멸제란 고통의 원인이 모두 사라진 열반의 경지가 있다는 진리이다.

8. 주희의 격물치지론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주희의 주장이다. 주희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양지를 가지고 있지만 궁리(窮理)를 하지 않으면 활연관통(豁然貫通)할 수 없다. 이때의 궁리란 사물의 이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자는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여 나의 앎을 극진히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주희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다.
- ② 왕수인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주희는 양지(良知)의 발휘만으로는 활연관통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주희에 따르면 양지는 궁리를 통해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다.
- ④ 앎과 행위가 본래 하나라는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은 왕수인의 입장이다.

9. 하이예크의 신자유주의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하이예크이고, 편지의 수신인인 ○○○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을 역설한 케인스이다. 하이예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고 복지 정책의 축소를 주장하며 작은 정부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하이예크는 시장 경쟁

체제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하이예크는 중앙 집권적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 ③ 케인스의 입장이다.
- ④ 하이예크는 경제적 자유의 실현을 경제적 평등의 보장보다 더 중시하였다.
- ⑤ 하이예크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와 개인의 자유가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다.

10. 인의(仁義)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나)의 가로 열쇠 (A)는 ‘왕수인(王守仁)’이고 (C)는 ‘의천(義天)’이다. 그러므로 세로 낱말 (B)는 ‘인의(仁義)’이다. 정약용은 인의예지라는 사덕(四德)을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이치가 아니라 타고난 사단(四端)을 일상에서 부단히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덕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정약용에 따르면 인의는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수오지심(羞惡之心)을 일상에서 확충함으로써 얻게 되는 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정약용에 따르면 인의는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측은지심과 수오지심을 확충한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덕이다.
- ② 주희의 예(禮)와 지(智)에 대한 설명이다. 정약용에 따르면 예지는 선천적인 덕이 아니라 인의처럼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덕이다.
- ③ 정약용의 사단(四端)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정약용은 ‘이기적인 본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嗜好)이다.

11. 이황과 이이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황이고, 을은 이이다. 이황은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근거해서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이이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함에 이가 탄 것이다(ㄱ). 이러한 이이의 입장은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고 기는 형태와 작용이 있다(ㄴ).’는 관점에 근거를 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이황과 이이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사단은 성(性)이 아니라 정(情)이기 때문이다.
- ㄷ. 이황과 이이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성리학자인 이황과 이이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개별 사물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12. 홉스와 마르크스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홉스이고, 을은 마르크스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는 전쟁 상태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세운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 상태를 벗어남으로써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연법만으로는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 ③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상 사회에서는 모든 계급이 소멸된다.
- ④ 마르크스는 모든 계급의 연대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부르주아 계급은 연대가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다.
- ⑤ 마르크스만의 입장이다. 홉스는 국가의 필연적 소멸을 주장하지 않았다.

13. 칸트가 흄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칸트이고, 을은 흄이다. 흄은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흄의 입장에 대해 칸트는 도덕적 감정은 도덕의 진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칸트에 따르면 동정심과 같은 도덕적 감정은 하나의 수동적인 감정이고 때로는 악을 옹호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 칸트는 그 자체로서 유일하게 선한 선의지만이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칸트는 행복을 도덕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도덕의 목적은 도덕의 바깥에 있지 않다.
- ② 흄은 도덕에 있어서 이성은 감정의 보조자일 뿐이라고 보았다.
- ④ 흄은 도덕성은 판단되기보다는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⑤ 칸트는 도덕적 행위와 행복의 추구가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다.

14. 칸트와 흄이 제시할 수 있는 조언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문제 상황>의 K 군에게 흄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共感)을 토대로 기부해야 한다는 조언을 할 수 있다. 흄에 따르면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공감이란 우리가 서로 감정을 교류할 수 있게 해 주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며, 그리하여 자신의 편협하고 개인적인 관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자연적 성향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칸트는 의무 의식을 기부 행위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이때의 의무 의식이란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생각할 때에는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어떤 도덕적 요구에 따라 그 일을 마땅히 수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 ② 칸트는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적 행위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흄은 도덕적 행위와 사회적 유용성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⑤ 흠에 따르면 이성은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없다.

15.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의 기본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스토아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이고, 을은 쾌락주의 사상가인 에피쿠로스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성과 자연의 이법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에피쿠로스는 참된 쾌락을 누리기 위해 헛된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며 검소하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두 사상가 중 누구도 개인의 욕망 충족이 사회적 쾌락의 증진으로 이어지게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아우렐리우스는 금욕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에피쿠로스는 개인적 쾌락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④ 에피쿠로스가 긍정할 주장이다.
- ③, ⑤ 아우렐리우스가 긍정할 주장이다.

16.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궁극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을 실현하려면 덕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인간은 본성상 정치적 존재이며, 국가는 완전하고 자족적인 공동체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궁극 목적인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덕은 중용의 반복적 실천이나 교육을 통해 획득된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실천적 지혜는 품성적 덕이 아니라 지성적 덕이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추상적 도덕 원리보다 행위자의 성품을 중시한 덕 윤리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행위와 감정에서 중용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파렴치함과 질투 등의 감정이나 절도와 살인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나쁜 것이기 때문에 중용이 있을 수 없다.

17. 의천과 지눌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의천이고, 을은 지눌이다. 두 사상가는 모두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의천은 교관겸수(教觀兼修)를 주장하였고, 지눌은 돈오점수(頓悟漸修)를 강조하였다. 특히 지눌은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을 수심(修心)의 요체로 삼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의천은 외적인 교(教)와 내적인 선(禪)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보았다.
- ③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을 것을 강조한 사상가는 혜능이다.
- ④ 의천과 지눌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⑤ 간화선이 필요하다고 본 사상가는 지눌이다.

18. 로크의 기본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정치적 의무의 근거를 시민들의 동의에서 찾았다. 로크에 따르면 개인의 정치적 의무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보호를 받는 모든 사람이 국가의 구성원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은 채 그 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그 국가의 보호를 받지만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로크에 따르면 국가의 구성원은 모두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
- ② 로크에 따르면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정치적 의무가 성립한다.
- ③ 로크에 따르면 정치적 의무의 성립 근거는 개인의 동의에 있다.
- ⑤ 로크에 따르면 국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동의이다.

19. 롤스와 왈처의 정의론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값은 롤스이고, 을은 왈처이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하였으며, 왈처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최초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ㄱ). 왈처는 분배적 정의와 관련되는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이라고 보았다(ㄷ). **정답 ①**

[오답피하기]

- ㄴ.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제2원칙은 제1원칙의 위반을 교정하는 원칙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허용과 관련된 원칙이다.
- ㄷ. 왈처는 정의의 각 영역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경계가 존재하며, 어떤 가치도 다른 가치에 의해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20. 증산교와 원불교의 기본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값은 증산교를 창시한 강일순이고, 을은 원불교를 창시한 박종빈이다. 강일순은 원한을 풀고 은혜를 갚을 것을 강조하면서 현세에서의 지상 낙원 실현을 주장하였다. 박종빈은 기존의 불교 사상을 개혁하여 한국형 생활 불교를 표방하였다. 그는 특히 생활 속에서의 보은·평등·불공의 실천을 강조하였다(ㄷ). 한편 강일순과 박종빈은 모두 신분과 남녀의 차별이 사라진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ㄱ. 강일순은 전통적인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무속과 도가를 재해석하였다.
- ㄴ. 박종빈은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의 개혁을 주장하였다.